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리타니, 기독교인 지도자 15명과 가족들 체포돼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이슬람 국가 모리타니아에서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 한 명이 다른 기독교 지도자 14명과 그 가족들과 함께 이달 초에 체포됐다고 인터내셔널크리스천 컨선(ICC)이 최근 전했다.

이 지도자들은 모리타니아의 기독교 공동체의 대표자들로, 모리타니아 기독교 공동체는 약 1,000명 정도 규모로 추정된다. 모리타니아의 현행 형법 306조는 배교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회개할 경우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체포는 모리타니아의 세례식을 보여주는 동영상에 게시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동영상은 금전적 이익을 노린 내부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빠르게 확산됐다.

이 동영상이 유포된 후 일부에서는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 “모리타니아에서 기독교인은 설 자리가 없다”는 등의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을 요구하는 등 충격적인 선동이 이어졌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적대감은 체포된 개인뿐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리타니아 정부는 인권 개혁과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는 노력을 하면서도 이러한 목표와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시민과 다른 급진 이슬람주의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리타니아 정부는 이번 기독교 지도자들의 체포가 자국의 ‘기독교인 문제’에 대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체포와 동영상 확산으로 인해 모리타니아 전역에서 기독교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기독교인들이 모리타니아 사회의 필수적인 구성원이며 지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용과 이해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편, ICC는 모리타니아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 가족을 돕기 위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린도전서 15:57-58)

하나님, 모리타니아의 기독교인들이 맞이한 위기 속에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승리를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교회를 위협하는 자들의 악한 계획은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의 믿음이 이슬람 국가인 이 땅을 복음화하는 데에 쓰임 받게 하소서. 특별히 이번 일로 세상에 알려진 기독교 공동체가 목마른 자들에게 복음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선하신 주의 손길로 함께해 주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지중해서 리비아 이민선 침몰·최소 61명 사망

리비아에서 출발한 이민선이 지중해에서 침몰하면서 어린이와 여성 등 최소 61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16일 엑스에 이같이 밝히며 리비아 서부 즈와라에서 출항한 이 선박에 모두 86명이 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IOM은 지중해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민 경로가 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북아프리카에서 이민선을 타고 지중해를 거쳐 유럽행을 시도하는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람페두사섬에 도착한 이민자의 수는 지난달 기준 15만여 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시편 145:14-15,19)

하나님,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며 고국을 떠난 리비아인들이 차가운 겨울 바다에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 앞에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이들의 여정을 보호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결하기 힘든 삶의 문제들로 넘어지는 자들을 능히 일으키실 뿐 아니라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리비아에 더욱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부르짖을 이름이 되어주사 하나님을 전부로 얻는 복을 주시고,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게 되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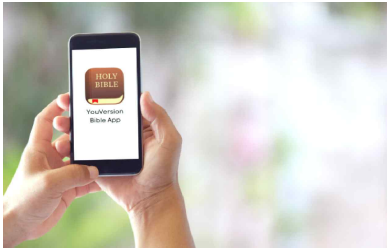
▲ 중국 간쑤성 6.2 강진 발생·127명 사망·734명 부상

중국 서북부 간쑤성 린샤 후이족 자치주에서 18일 밤 11시 59분(현지시간) 규모 6.2 강진이 발생해 최소 127명이 숨지고 734명이 다쳤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을 인용해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지진 잔해에 갇혀 있는 주민들을 구조 중이고, 부상자가 많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지진으로 진원 주변 가옥·수도·전기·도로 등 기반 시설이 상당 부분 훼손됐고, 당국은 지진 발생 후 재난 담당 관리들과 소방 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비상 대응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 지역이 넓고, 린샤 주는 해발 2,000m의 고원지대로 영하 14도 안팎의 강추위까지 겹쳐 구조 작업이 쉽지 않고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래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시편 46:1-3)

하나님, 강진이 발생한 중국 간쑤성 주민들에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셔서 고통과 슬픔에 빠진 자들이 주님 안에서 보호받게 해주십시오. 강추위에 터전을 잃은 자들을 긍휼로 살펴 주시고, 구조 팀들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게 해주소서. 자연재해로 인해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 그 약속을 피난처 삼아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유버전 성경 앱, 올해에만 1억 건 이상 다운로드...성경 사용량 증가해



모바일 성경 앱 ‘유버전’(YouVersion)이 올해 들어 앱 다운로드 수가 1억 건 이상 증가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는 2020년의 이전 최고치인 7,600만 건을 넘어선 것이며, 2023년 일일 성경 사용량은 20% 증가했다.

특히 인도에서는 2022년 대비 다운로드 수가 53% 증가했으며, 현지 주민들은 350개 이상의 언어로 된 700개 이상의 성경 버전을 사용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앱 다운로드 수가 107% 증가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2022년 대비 성경 참여가 98% 증가했으며, 케냐(225%), 카메룬(229%), 우간다(288%)가 선두에 있다.

한편 2023년 유버전 성경 앱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강조하고 즐겨찾기 하며 공유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로 확인됐다. 또한, 유버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앱 사용자들은 사랑, 평화, 치유, 희망, 그리고 불안에 대한 답변을 자주 검색했다.

유버전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 바비 그루네왈드(Bobby Gruenewald)는 성명에서 “세계적인 관점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사람들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약속된 희망과 평화에 계속 이끌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감지되지만, 우리는 믿음이 해답임을 믿는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소에서, 매일 전하는 것이며, 이를 우리 혼자서는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되는 것을 보면서, 파트너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워질 것을 생각하면 흥분된다”고 밝혔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한복음 17:16-17)

하나님, 세계적으로 불확실한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커질수록 성경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때에 주의 일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가난한 심령과 목마름으로 성경을 찾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연합하여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소망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이 각 사람의 마음에 부어져 열방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역사가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 헝가리, 동성혼 금지·동성애 성교육 금지 10년…출산율 증가

기독교 비율이 절반이 넘는 헝가리에서 동성혼 법적 금지와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 금지 등의 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헝가리는 2021년 학교 성교육이나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의 영화와 광고 등에서 동성애 묘사를 법적으로 금지한 일명 ‘아동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2020년에는 결혼을 ‘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제도’로 인정하고,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금지하는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반동성애 정책을 펴는 동안 헝가리의 출산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지난 3월 발표한 국가별 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헝가리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1.61명(EU 평균은 1.53명)을 기록했다. 이는 EU 평균인 1.53명보다 0.08명 높다. 10년 전인 2011년 1.23명, 2019년 1.55명, 2020년 1.59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잠언 19:16,23)

하나님, 동성혼과 동성애 성교육을 법으로 금지하며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 헝가리에 계속해서 새 생명의 축복을 더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혼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다음세대 교육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더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 헝가리인들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동성애를 무분별하게 허용한 다른 국가들이 혼돈과 육체의 열매로 어려움을 겪을 때 헝가리의 선한 행실을 보며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해주십시오.

▲ 일본 청소년, 약물 과다 복용 47% 증가…약물 오남용 심각

일본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을 찾는 청소년의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19일 아사히신문을 인용, 뉴시스가 전했다. 일본 보건당국과 소방 당국은 2022년 ‘약물 과다 복용 의심 환자’ 중 10대 환자의 수가 1,494명으로 2020년에 비해 4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대 환자는 2022년 3,295명으로 2020년보다 21% 증가했다. 또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는 전 연령대에서 총 1만 682명으로 2020년보다 11% 증가했다.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8일 ‘오남용 우려’ 성분이 들어간 일반 의약품 판매를 규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도야마현에서 약물 복용으로 사망한 한 21세 남성을 치료했던 의료진은 “일반 의약품이 불법 약물보다 구하기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약을 남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후생성의 조사기관이 2021년 전국 고등학생 약 4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60명 중 1명이 “지난 1년 동안 기분 전환을 위해 일반 의약품을 남용한 적 있다”고 답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에베소서 4:17-18,24)

하나님,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본 다음세대의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취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허망한 마음대로 행하던 일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뇌 손상과 환각을 유발하는 약물 남용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해주시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새롭고 기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변화하는 참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자랑하는 다음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돌이키고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살라”
체코 프라하 카렐대서 총격...15명 사망·24명 부상**



체코 프라하의 명문 카렐대에서 21일(현지시간) 총격이 벌어져 1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쳤다. 총격범도 사망했다. 마르틴 본드라체크 경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은 이들도 있어 희생자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체코 CTK통신 등이 전했다.

이번 총격은 프라하의 대표적 명소인 카를교에서 불과 수백m 거리의 안 팔라흐 광장에 있는 카렐대 철학부에서 발생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체코 현지 언론을 인용해 총기난사범으로 알려진 이 대학 예술학부 학생 다비트 코자크(24)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대량 살상에 집착하는 내용을 여럿 올렸다고 보도했다.

총격범은 이날 오후 고향 마을을 떠나 프라하로 향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밝힌 것으로 신고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후 고향 마을에서는 55세인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를 코자크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총격범이 이날 카렐대 특정 건물에서 강연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건물에 있던 이들을 대피시켰으나, 총격은 다른 건물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범은 해외의 끔찍한 총격 사건들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격범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도 총격범을 상대로 무기를 동원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을 봉쇄했다. 경찰은 “시민들은 사건 현장 근처에 머물지 말고, 집에서 나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에는 구조대와 의료진이 대거 파견됐다.

1348년 설립된 카렐대는 유럽에서 오래된 대학 중 한 곳으로 재학생이 4만 9천500명에 달한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카렐대 철학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총격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과 친지들에 깊은 유감과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에스겔 33:11)

하나님, 체코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격 사건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죄인의 욕심과 허망한 마음을 따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일을 진멸하여 주소서. 십자가 복음 없는 우리의 실상이 이토록 소망 없는 모습임을 알기에 충격에 휩싸인 체코인들에게 구원의 능력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길 기도합니다. 부상 당한 사람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길 바라시는 주의 마음을 붙들고 죄의 권세를 기도로 파하며 영적 전쟁을 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영국 교육부, 학생이 교사에게 자기가 선호하는 성별 강요 못해

영국 교육부가 교사, 어린이, 교직원은 학생들이 스스로 선호하는 성별로 지칭할 필요가 없음을 규정했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보도했다. 영국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새로운 트랜스젠더 지침에 따르면, 아이들의 사회적 전환을 허용하는 데 '일반적인 의무'가 없으며, 그렇게 할 경우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또 학교와 대학은 개별 학생들의 이익이 학교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대명사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지침은 또한 "모든 어린이는 고통을 겪지 않는 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지정된 화장실, 샤워실 및 탈의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기독교연구소의 존 데닝 교육 책임자는 "이 문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환영하면서도 "이제 정부는 이것이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 아들이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잠언 4:20-22)

하나님, 세속화의 물결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성 이념, 성 중립 화장실 등을 분별없이 허용했던 영국 사회가 다시금 돌이켜 바른 질서를 세우고자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를 저버리고 영혼의 생명과 육체의 건강을 쉽게 잃어버릴 위기에서 각성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사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십자가의 자리로까지 돌아오게 하소서. 영국의 다음세대가 진리를 듣고 행하는 바른길로 걸으며 육체의 정욕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땅의 교회가 더욱 깨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게 하옵소서.

▲ 태국 하원, 동성 결혼 합법화 초안 압도적 찬성

태국의 '결혼평등법' 초안이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22일 전했다. 이날 하원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출석 의원 371명 중 360명이 찬성하고, 반대 10표, 기권 1표에 그쳤다. 동성 결혼 합법화에 관한 다른 3개 법안 역시 통과됐다. 최종 법안은 정부안을 기반으로 통합해 내년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부결됐다가 이번에 다시 제출하면서 '내남대로성별(LGBT)'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은 현 집권당과 야당이 모두 찬성을 표명해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브리서 13:4)

하나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주님의 질서를 의도적으로 거스르며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태국 사회의 반역을 꾸짖어 주시고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리를 모른 채 육체의 정욕과 죄에 종이 되어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들려지게 하사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죄로 얼룩져 함께 타락해 가는 사회 속에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태국 교회를 일으키셔서 그 기도로 이 땅이 고침을 받아 거룩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